

『斜川詩帖』의 체제와 회화사적 의미

이 은 하*

| |
|-----------------------|
| I. 머리말 |
| II. 『斜川詩帖』의 형성과 제작배경 |
| III. 『斜川詩帖』 詩畫 구성과 양식 |
| IV. 맺음말 |

I. 머리말

『斜川詩帖』은 조선중기 문인 李好閔(1553~1634), 李景嚴(1579~1652) 부자의 별서, 계획과 관련된 화원 李信欽(1570~1631)의 그림과 중기 문인들의 시문, 글씨들로 이루어진 시서화첩이다.¹ 春, 夏, 秋, 冬 4권의 『斜川詩帖』과 1권의 『世年契會帖』이 『사천시첩』이라는 표제 하에 하나의 帙로 구성되어 있다(도 1).

『사천시첩』 4권은 이신흙의 그림 4점을 각 첩의 시작으로 한다. 春帖의 〈斜川庄八景圖〉(도 2)는 이호민 부자의 별서인 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일대의 斜川庄과 그 주변 경관을 그린 것이며, 이 외 〈船遊圖〉(夏)(도 3), 〈鷺蓮圖〉(秋)(도 4), 〈花鳥圖〉(冬)(도 5)를 필두로 하여 조선중기 문인 34인의 친필 시문(70여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년계회첩』은 이호민가의 한양 저택 후원에서 열린 세년계회를 담은 이신흙의 〈世年契會圖〉(도 6)를 시작으로 이호민의 서문 및 계획에 참석한 이들의 좌목이 이어진다.

『사천시첩』은 문인들의 이상가치가 예술작품으로 형상화된 방식과 문인들의 교류관계 및 문예활동 양상 등 당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史料이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¹ 『사천시첩』 영인본(보진재, 1972);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Ⅲ)-斜川詩帖, 耆老所契帖』(삼성미술관 Leeum, 2009) 참고.

다. 아울러 조선중기의 별서도, 계획도, 화조화, 산수인물화, 제화시문, 글씨가 함께 성첩된 유일한 미술사 사료이기 때문에, 중기 화단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당대의 명성에 비해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신흠 회화의 기년과 양식적 특징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매우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시작은 필자가 『사천시첩』을 처음 접하면서 생긴 의문점들, 왜 「사천시첩」과 「세년계획첩」이 한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시문과 그림들은 언제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인지, 〈사천장팔경도〉와 화조화, 산수인물화가 함께 성첩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림 속의 장소와 의미, 양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서 비롯되었다.

『사천시첩』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천시첩」과 「세년계획첩」이 각각 분리되어 논의되었다. 국문학계에서는 「사천시첩」 시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경업의 사천장 경영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시문 번역에 오류가 있고 시문과 그림과의 유기적 분석이 시행되지 못한 관계로 사천장 경영 및 첩의 제작시기 추정에 착오가 있었다.²

미술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 팔경도나 별서도의 한 예로서 〈사천장팔경도〉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 시도되었고, 계획도의 한 예로서 〈세년계획도〉의 양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세년계획도〉는 계획이 열린 장소와 그곳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사천장팔경도〉는 팔경의 현재 위치 및 표현방식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또한 〈사천장팔경도〉와 함께 「사천시첩」에 있는 3점의 그림들에 대한 언급은 논문에 등장하지 않거나, 그림의 존재 여부가 소개되어있다 하더라도 성첩 목적과 양식고찰은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구만으로는 『사천시첩』을 접하면서 들었던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사천시첩』의 체제와 양식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면밀한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사천시첩』의 의미재고를 위해 본고에서 주목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천장과 관련된 첩과 세년계획과 관련된 첩이 한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 첩의 제작연도는 언제인가.

둘째, 「사천시첩」 춘, 하, 추, 동첩에 등장하는 〈사천장팔경도〉와 〈선유도〉, 〈노연도〉, 〈화조

² 권경록, 「『사천시첩』에 나타난 문인들의 문학공간과 그 형성화」, 『한국어문학연구』 49(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김은정, 「이경업의 사천장 경영과 『사천시첩』의 의미 재론」, 『국문학연구』 19(국문학회, 2009) 참고.

³ 김현지, 「조선중기 실경산수화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조규희,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이상아, 「조선시대 팔경도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이순미, 「조선후기 정선화파의 한양실경산수화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학과 미술사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진준현, 「400년 전 화가의 눈에 비친 북악과 숙정문」,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태학사, 2011) 참고.

⁴ 〈세년계획도〉에 등장하는 장소의 현재위치에 대해서는 진준현, 앞의 논문, 앞의 책(태학사, 2011) 참고.

도)는 언제 그려졌고,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양식은 어떠한가.

셋째, 〈사천장팔경도〉와 〈세년계회도〉에 등장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이곳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밝혀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사천시첩』의 내, 외적 구성 체제와 詩畫 양식을 고찰함으로써, 『사천시첩』의 역사적, 회화사적 의미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Ⅱ. 『斜川詩帖』의 형성과 제작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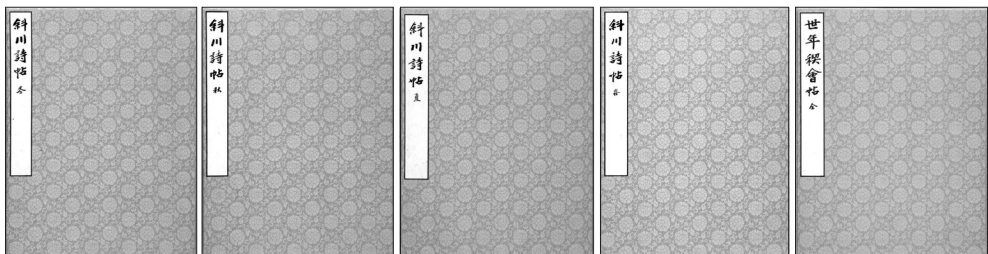
『사천시첩』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어떠한 제작배경을 거쳐 완성되었는가.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사천시첩』 구성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 하, 추, 동 4권의 「사천시첩」과 1권의 「세년계회첩」으로 이루어진 『사천시첩』은 배접과 장황 상태로 보아 근대 이후 새로 개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장하면서 작품을 배접한 외곽에 해당 그림과 시문의 작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두었는데, 기재한 이에 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도 1-7).

「사천시첩」 춘첩 첫 장에는 ‘斜川庄’이라는 金柱宇(1598-1644)의 편액 글씨와 ‘무오년(1618) 가을 花山 김주우가 李聘君(이경엄)을 위하여 쓰다.’라는 글이 등장한다(도 7). 다음으로 柳希亮(1575-1628)의 篆書와 이신흠이 이호민가의 별서 사천장 일대(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를 그린 〈사천장팔경도〉(도 2)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호민을 포함하여 이정귀, 윤신지, 한준겸, 윤방, 홍서봉 등 선조, 광해조 연간 대표적 문인 11인의 시문들이 뒤를 잇는다.

하첩 첫장에는 선유 장면과 어부가 등장하는 이신흠의 산수인물화 한 점(도 3)을 시작으로 이호민의 아들 이경엄을 비롯하여 이준, 목대흠, 조희일 등 15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추첩은 패하백로를 소재로 한 이신흠의 화조도 한 점(도 4)을 시작으로 김현성, 심희수, 임



도 1 『사천시첩』의 구성 (「사천시첩」 4권 + 「세년계회첩」 1권)



도2 이신희, 〈사천장팔경도〉, 「사천시첩」 춘첩, 1617년 이전, 34×56cm, 견본담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3 이신희, 〈선유도〉, 「사천시첩」 하첩, 1604년경, 지본수묵,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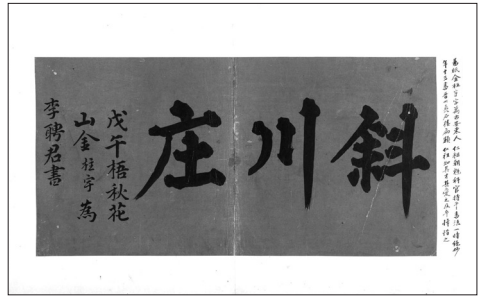
도4 이신희, 〈노연도〉, 「사천시첩」 추첩, 1604년경, 지본수묵,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5 이신희, 〈화조도〉, 「사천시첩」 동첩, 1604년경, 지본수묵,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6 이신희, 〈세년계회도〉, 「세년계회첩」, 1604년, 지본수묵,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7 김주우 서, 〈斜川庄〉, 「사천시첩」 춘첩, 1618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숙영, 이수광 등 6인의 시문이 이어진다.

마지막 동첩은 세 마리의 새를 중심소재로 한 이신희의 화조도 한 점(도 5)을 시작으로 유근, 정경세, 윤근수, 이경엄 4인의 시가 이어진다.

시문들은 춘, 하, 추, 동첩 첫머리에 서문격의 글을 배치하기는 하였으나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천시첩」은 편역 끝씨 작품 1점과 이신흠의 회화 4점, 이호민과 이경엄을 포함한 조선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 문사 34인의 친필 시문 46점(70여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서화첩이다.

「세년계회첩」은 이호민 부자의 한양 집 후원에서 개최된 세년계회를 그린 이신흠의 그림 1점(도 6)과 이호민의 발문(1604), 허항, 이증기, 한선일 등 계회 참석자 9인의 명단을 쓴 좌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천팔경의 지정과 <사천장팔경도> 제작시기

「사천시첩」 4권의 그림들은 제작연도를 알 수 없으나, 46점의 시문들은 대부분 기년이 명시되어 있다. 시문들이 제작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와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사천시첩」의 시문

| 내용/ 연도 | ①八景詩 | ②和遊斜川詩文 | ③기타 |
|-----------|----------------------------------|---------------------------------------|--|
| 1617 | 任叔英(1576-1623), 「제사천장팔경도」(추첩) | | |
| | 金中淸(1567-1629), 「사천장팔영」(하첩) | | |
| 1618 | | 李景巖(1579-1652), 「오연시」(동첩) | 李景巖(1579-1652)이 쓴 도연명의 「유사천병서」(하첩) |
| | | | 任叔英(1576-1623) 文, 金玄成(1542-1621) 書, 「사천장시권서」(춘첩) |
| 1619 | 沈喜壽(1548-1622), 「사천팔영」(추첩) | 李好閔(1553-1634), 「서문」, 「오연시」(춘첩) | |
| | | 李廷龜(1564-1635), 「사천장팔경도시서」(춘첩) | |
| | | 沈喜壽(1548-1622), 「서문」, 「유사천차운시」(추첩) | |
| | | 柳根(1549-1627), 「제사천장첩병서」(동첩) | |
| 1621 | | 韓浚謙(1557-1627), 「유사천차운시」(춘첩) | |
| 1622 | 李暉光(1563-1628), 「사천팔영」(추첩) | 李暉光(1563-1628), 「오연시」(추첩) | 李元翼(1547-1634)의 간찰(춘첩) |

| | | | |
|------|-------------------------------|---------------------------------------|--|
| 1623 | | 李安訥(1571-1637), 「오연시」(하첩) | |
| | | 尹昉(1563-1640), 「유사천차운시」(춘첩) | |
| | | 鄭經世(1563-1633), 「오연시」(동첩) | |
| 1624 | | | 睦大欽(1575-1638), 「오연시」(하첩) |
| 1625 | | 洪瑞鳳(1572-1645), 「유사천차운시」(춘첩) | |
| | | 趙希逸(1575-1638), 「오연시」(하첩) | |
| | | 李植(1584-1647), 「서문」, 「유사천차운시」(하첩) | |
| 1628 | 李景奭(1595-1671), 「사천팔영」(추첩) | 張維(1587-1638), 「유사천차운시」(춘첩) | |
| | | 李敏求(1589-1670), 「오연시」(하첩) | |
| | | 李景奭(1595-1671), 「오연시」(추첩) | |
| | | 李景稷(1577-1640), 「유사천차운시」(추첩) | |
| 1631 | | 趙灑(1579-1655), 「오연시」(하첩) | |
| 1632 | 李慶全(1567-1644), 「사천팔영」(하첩) | | |
| | 鄭百昌(1588-1635), 「추부팔영」(하첩) | | |
| 1636 | | 申翊聖(1588-1644), 「오연시」(하첩) | |
| 1639 | 申翊聖(1588-1644), 「사천팔영」(하첩) | 李景義(1590-1640), 「유사천차운시」(하첩) | 申翊聖(1588-1644), 「서사천첩후」(하첩) |
| 1641 | | 朴灑(1592-1645), 「유사천차운시」(하첩) | |
| 1645 | | 尹新之(1582-1657), 「서문」, 「유사천차운시」(춘첩) | |
| 1646 | | | 尹根壽(1537-1616) 詩(1605), 李景巖(1579-1652) 書, 「봉송부여이지현지입」(동첩) |
| 미상 | | 李竣(1560-1635), 「유사천차운시」(하첩) | 李安訥(1571-1637) 書, 소식의 「정월오일여아자과출유사천」 과 김시습의 「화연명유사천」 (춘첩) |
| 미상 | | 鄭百昌(1588-1635), 「오연시」(하첩) | 李應著(1594-1660), 「칠연시」(하첩) |
| 미상 | | | 金玄成(1542-1621) 書, 「사천팔영」 표제(추첩)(1619이전) |

이상의 분류를 보면, 「사천시첩」 시문들은 1617년부터 1646년경까지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상 크게 ①사천팔경에 대한 시 ②陶淵明 「遊斜川」 시에 화답한 시문 ③이경엄, 도연명과 관련된 간찰과 시문들로 나눌 수 있는데, 사천팔경시 8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도연명의 「유사천」에 차운하거나, 「유사천」의 내용을 담은 시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제시가 1617년 여름 임숙영이 〈사천장팔경도〉에 제한 것임을 볼 때, 이호민가는 이미 1617년 이전에 사천장을 짓고, 팔경을 지정하였으며, 팔경도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천장을 짓게 된 과정과 「사천시첩」의 제작배경은 이호민과 이경엄 부자의 글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용문산 서쪽에 洞天泉石의 승경이 있는데, 이곳에는 내 선조의 묘가 있다. 옛 명칭은 舍那인데, 사나는 불교용어이다. 아마도 고려 승려 普雨가 일찍이 이곳에 살아서 불교용어를 사용하여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도연명의 『陶靖節集』을 읽었는데, 「遊斜川」이라는 시가 있고 小引도 함께 있었다. 이 골짜기 역시 이름이 원래 사천이었는데, 훗날 (사나로) 오전된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내 아들 경엄이 지명(도연명의 사천과) 같은 것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쉴 곳이 있음을 즐거워 하였다. 드디어 사나라는 표기를 사천이라는 글자로 바꾸고 이윽고 그 아래에 집을 지었다.(하략)⁵

- 이호민의 「서문」(1619)(춘첩) 中,

만력 무오년(1618) 가을에 나는 斜川에 있었다. 우연히 『도연명집』을 읽다가 이 시(「유사천 병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고금에 일치됨을 기뻐하고는, 두루마리 첫머리에 시를 베껴 써서 여러 원로 대가분들과 옛 친구와 제원들에게 화답시를 요구하였으니, 너무 무례하지 않을까 황송하고 황송하다.⁶

- 이경엄의 「유사천병서」(하첩) 中,

이상의 글들을 보면, 사천의 옛 지명은 舍那이고, 사나는 불교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호민은 용문산 서쪽 사천 일대에 선대의 묘를 모시면서 이곳을 알게 되었으며, 이경엄은 1618년 가을 사천에 머물면서 도연명의 「유사천」을 보고 자신의 별서 지명과 도연명의 사천이 같음을 발견하고는 여러 명현들에게 「유사천」에 대한 차운시를 부탁하였다.

이 글들과 다른 시문들의 제작연대 및 내용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

5 이호민, 「斜川次陶靖節先生韻并序」, 『五峯集』 卷 6, 『한국문집총간』 59집, p. 408. “龍門山之西有洞天泉石之勝 吾先祖墓在焉 舊號舍那 舍那 蓋佛語也 豈以麗僧普愚嘗居是洞 而用佛語也 嘗閱陶靖節集 有遊斜川詩并小引 安知是洞亦名斜川 而被誤於後耶 家豚景巖 喜地名之相同 而樂依歸之有所 遂革舍那 而用斜川字 仍築室其下(下略)”

6 이경엄, 「遊斜川并序」, 「斜川詩帖」(夏帖), “萬曆戊午秋 景巖在斜川 偶閱淵明集 見有此詩 樂其古今一致 書諸卷首 乞和于諸老大人前及知舊僉契 僭越惶惶悚悚”

다. 이경엄은 1617년 이전에 사천장을 짓고, 팔경을 지정하고, 팔경도를 제작하였으며, 1617년에는 <사천장팔경도> 제화시를 받았다.⁷ 그러던 중, 1618년 사천장과 도연명 「유사천」과의 공통점을 찾게 된 이후로는 도연명과 사천장과의 관계를 널리 알리는 일에 치중하였다. 「사천시첩」의 46점 시문들이 사천팔경시 8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도연명 「유사천」과 관련된 시문이라는 점은 이경엄이 도연명과 자신의 별서와의 연관성을 피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경엄의 노력은 「사천시첩」 시문들의 내용에도 자주 등장한다.

이에 앞서, 1612년 이경엄 부자는 金直哉의 무옥에 관련되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김직재의 무옥은 대북파가 소북파의 잔당을 제거하려 일으킨 것으로, 당시 봉산군수 申慄이 조작하여 김직재의 일족을 희생물로 삼아 꾸민 무옥이었다.⁸

김직재는 이호민의 조카사위였으며, 무옥을 일으킨 신율은 이호민의 사위였다. 즉 이호민은 무옥의 피해자이면서 가담자로서 모두 연루되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경엄은 1616년 충원 현감으로 나갔다가 부친이 대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감으로 부임하였다는 탄핵을 받았다.⁹ 아마도 이 시기에 이경엄은 사천장 은거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천팔경의 지정, 팔경도 제작 등은 「사천시첩」 시문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시가 제작된 1617년 이전인, 1616년을 전후하여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사천시첩」 시문들과 이경엄의 행적을 통해, 사천팔경의 지정과 팔경도의 제작은 1617년 이전, 1616년에서 1617년 무렵으로 추정하였으며, 시문의 제작은 1617년부터 1646년경까지 지속된 것을 살펴보았다.

2. <사천장팔경도>와 산수인물도, 화조도, 그리고 <세년계회도>의 관계

「사천시첩」 각 첫 장에는 <사천장팔경도>와 함께 선유도 1점과 화조도 2점이 등장한다. 이 3점의 그림들이 「사천시첩」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거나, 또

⁷ 이호민은 1619년의 서문에서 이경엄이 사천의 옛 지명 '사나'를 '사천'으로 바꾸고 집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경엄은 1618년의 글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이 그의 별서가 있는 사천 지명과 도연명의 사천이 같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경엄이 1613년과 1614년에 지은 시에는 '斜川老居士', '斜川野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진동혁, 「새 자료 이경엄(1579~1652)의 시조」, 『시조학논총』 12(한국시조학회, 1996), pp. 82-85] 여러 가지 정황상, 이호민가가 별서와 전장을 운영하던 시기 사천지역의 명칭이 '사나' 혹은 '사천'으로 불리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은정은 이경엄의 1613년과 1614년의 시에 나타난 '사천'이라는 용어로 인해 이경엄이 1613년 이전에 이미 별서와 전장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김은정, 앞의 논문, pp.28-29), 「사천시첩」에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시문이 1617년 <사천장팔경도> 제화시임을 볼 때 별서와 전장의 경영은 1617년 무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⁸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한국사론』 20, 1988) 참고.

⁹ 진동혁, 앞의 논문, pp. 76-68; 김은정, 앞의 논문, pp. 29-30 참고.



도8 「사천시첩」 그림들의 현재 구성 (사천장팔경도) - <선유도> - <노연도> - <화조도>



도9 「사천시첩」 산수인물도, 화조도의 원래 조합 (『세년계회첩』의 <세년계회도>와 함께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

는 사천장 주변의 정경을 나타낸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그림들에 대한 정보는 「사천시첩」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단에 그려진 (사천장팔경도)와는 달리 3점의 그림들은 같은 재질의 종이에 그려져 있으며, 크기와 화풍이 같고, 화사 이신흠이 그려 올린다는 묵서와 함께 그림의 외곽 전체에 붉은 계선이 이중으로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도8). 그런데 이러한 양식은 현재 춘, 하, 추, 동 「사천시첩」과 함께 책갑에 포함된 『세년계회첩』의 <세년계회도> 및 좌목의 양식과 동일하다(도9).

따라서 3점의 그림들은 세년계회와 관련한 그림들일 가능성이 있다. 세년계회는 세년, 즉 부자 2대에 걸쳐 사마시에 같이 급제한 동료들의 모임을 말하며, <세년계회도>는 모임을 기념하여 그려진 그림이다. <세년계회도>와 함께 있는 이호민의 발문을 살펴보면, 세년계회의 주최와 취지를 알 수 있다.

옛 사람은 과거에 함께 급제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천하의 모든 사람도 같이 급제한 이들에게는 형제의 의리가 있다고 여긴 즉, 그 중요시한 것도 마땅하다 하겠다. 그 부친이 이미 급제 동기이고, 그 아들들이 다시 급제 동기인 것을 ‘世年’이라 하여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 벗들은 만력 기묘(1579) 사마시 급제 동기들인데, 그 후 23년인 신축년(1601)에 우리 동년의 아들들 중 급제한 자가 9인이다.(중략) 좋은 시절은 다시 오기 어렵고 뛰어난 일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니, 너희들이 계를 조직한 뜻도 아름답다 하겠다.(하략)¹⁰

이호민은 1579년 기묘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는데, 20여년이 지난 1601년 신축 사마시에 아

¹⁰ 이호민, 『題卯丑司馬世年縵序』, 『五峯集』卷7, 『한국문집총간』59집, p. 428 참고.

들 이경엄도 합격하였다. 이 때 이경엄의 동기 중 부친이 이호민의 사마시 동기인 자가 9명이 있었다. 이에 이경엄은 동기 9인과 한양 저택 후원에서 계회를 열고 그 모습을 이신흠에게 그리게 한 후, 1604년 아버지로부터 서문을 얻었다.

이호민의 서문에 의해 세년계회의 개최를 1604년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세년계회도> 역시 이때 그려졌을 것이다. 따라서 선유도와 화조도 그림들도 <세년계회도>와 함께 1604년 무렵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후대에 <사천장팔경도>와 시문들, 그리고 세년계회 관련 그림들을 지금과 같이 장첩하는 과정에서, 원래 <세년계회도>와 있던 그림들을 <사천장팔경도>와 함께 춘, 하, 추, 동첩 시작면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도 8, 9).

그렇다면 왜 계회도와 선유도, 화조도가 함께 제작되었을까. 이러한 상황은 조선중기 계회첩인 <연계동년계회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계동년계회첩>은 현재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원래는 하나의 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계회첩에는 <죽조도>, <백로도>, <노안도> 3점이 각기 2면씩 6면에 걸쳐 그려져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계회도 대신 화조화가 등장하는 계회첩으로서 주목되어왔다(도 10).¹¹ 그러나 이 계회첩에는 원래 계회도가 존재했을 수 있으며, 화조화들은 계회장면을 대신하는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계회에 초빙된 화가가 계회 도중 제작한 그림들일 가능성이 있다.¹²



도 10 작자미상, <연계동년계회첩> 그림 부분, 지본수묵, 각 28,9×57cm, 개인소장

¹¹ 계회명인 蓮柱는 연방과 계방의 첫 글자를 합친 것으로, 연방은 司馬試인 생원과와 進士科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榜目이며 계방은 大科 합격자를 적은 방목이다. 따라서 연계동년계회란 같은 해에 소과, 대과에 합격하여 출사한 사람들끼리 조직된 친목모임이라는 의미로, 목서를 통해 1606년 소과에 이어 1624년 대과에 합격한 박돈복 외 7인의 계회임을 알 수 있다. 목서에는 有司의 자격과 임기, 모임의 시기와 목적 등의 규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1632년 12월이라는 계회 개최 간기가 있어 화조화 3점의 제작 연도 또한 이 때로 추정되고 있다. <연계동년계회첩>에 대해서는 이수옥, 『연계동년계회첩』, 『고미술』 20(한국고미술협회, 1988); 이원복, 『조선중기 사계영모도고』, 『미술자료』 47(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56-58;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3), pp. 270-271; 우학문화재단 소장 조선의 명화, 『사인심취』(용인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2010), pp. 135-138 도판설명 참고.

¹² <연계동년계회첩> 화조화에 대한 의미 재고와 양식고찰은 이은하, 『조선시대 화조화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학과 미술사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pp. 88-90 참고.

작품은 현전하지 않지만, 조선후기 문인들의 아회에서 직업화가 화조화를 그린 예가 기록으로 전한다. 權常愼(1759~1825)이 김홍도가 그린 〈隱巖雅集圖〉에 찬한 글을 보면, 1788년 3월 7일에 권상신을 포함한 이한진 심상규 등의 14인이 난정계회를 본 따 은암에서 아회를 가졌는데 이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44세인 김홍도가 〈은암아집도〉를 제작했다고 한다. 권상신의 기록은 아회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김홍도가 그린 〈은암아집도〉의 양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회 중간에 김홍도가 새와 꽃, 대를 그렸다는 대목이다.

상사일 경산(이한진)어른을 모시고 은암에서 모이니 어른만 14인이었다. 술향아리, 술잔이 어지러이 벌여있고 지은 시편들이 쌓였다. 술이 반쯤 오르자 경산 어른은 전서를 쓰시고, 유환경은 거문고를 타고 단원은 새와 꽃, 대를 그렸다. 자연 풍광의 감상도 다 하고 놀이도 극진히 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다가 달을 등에 지고 흠여졌다. (중략)이에 김홍도에게 명해 은암아집도를 그리게 하여 찬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¹³

김홍도는 모임에 참여한 문인들이 글씨를 쓰고 거문고를 탈 때, 화조와 대나무 그림을 그렸다. 아회 시에 제작한 그림인 만큼 그가 그린 화조화는 문인취향의 수묵화조화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연계동년계회첩》의 화조화들도 계회장면을 대신하는 목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계회 도중 화가가 그린 화조화들을 계회첩 제작시에 포함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천장팔경도〉와 함께 춘, 하, 추, 동첩 권두에 등장하는 화조화와 산수인물화 또한 1604년 세년계회 시에 〈세년계회도〉와 함께 이신흠에 의해 제작된 그림들로 생각된다.

회원 이신흠은 1546년 명의 사신 심유정 일행의 초상화를 제작하였으며, 1604년에는 정사 이정귀, 주청부사 민인백을 수행하여 중국에 다녀왔다.¹⁴ 이호민은 1595년 부제학으로 명나라와의 외교문서를 전담했으며 참찬관을 거쳐 동지중추부사로 1599년, 1608년 두 차례의 중국 연행을 다녀왔는데,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통해 이호민 부자와 이신흠이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신흠은 이호민가와 친분이 있고 경기 지역에 별서를 갖춘 문인들의 그림 요구에도 응했다.¹⁵

이상으로 『사천시첩』의 제작과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사천시첩』의 시화구성과 내용, 양식적 특징 등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¹³ 權常愼, 『隱巖雅集圖』, 『西漁遺稿』 卷 5, p. 25;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pp. 413-415 번역 참고.

¹⁴ 『선조실록』 28년 을미(1595) 5월 4일(병자)조, 『선조실록』 37년 갑진(1604) 5월 1일(신해)조 참고.

¹⁵ 이신흠은 월사 이정귀의 부탁으로 〈섬강도〉를 그렸으며, 태당 이식의 양평 별서를 팔경으로 표현한 〈동계팔경도명〉을 제작하였다. 이신흠의 회화활동에 대해서는 진준현, 앞의 논문, 앞의 책(태학사, 2011), pp. 154-155; 이순미, 앞의 논문, pp. 103-104 참고.

Ⅲ. 『斜川詩帖』 詩畫 구성과 양식

1. 시문의 구성과 내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천시첩」 시문은 대개 팔경시와 도연명 「유사천」에 차운한 시문으로 나눌 수 있다. 팔경이란 특정한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8가지로 집약하는 것인데, 宋의 소상팔경도와 시가 전래된 이후 조선에서도 일상적인 주변경관을 8경으로 포착하여 표제로 삼는 전통이 이어졌다. 조선전기까지는 주로 서울의 관료문인이 지방의 경치와 특성을 읊었으나, 중기 이후로는 점차 개인의 공간을 팔경으로 지정하고 특성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¹⁶

이정엄이 지정한 사천팔경은 예전의 양근, 현재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일대이다. 사천팔경의 표제는 「門岩洞天」, 「乾支松柏」, 「龍岫晴嵐」, 「雲峰皓月」, 「舍寺尋眞」, 「砧橋勸耕」, 「郡城曉角」, 「蹄灘暮帆」이다. 이들 표제는 중국의 소상팔경 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정되었다. 앞의 두자는 장소 혹은 경관명이며, 나머지 두자는 각 경관이 자아내는 정취나 상황을 의미한다. 이정귀는 〈사천장팔경도〉를 보고 사천을 실제 유람하였던 기억을 살려 팔경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을사년(1605) 봄에 내가 경기 관찰사로 영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다가 여강을 건너 신록사를 유람하고 지평을 거쳐 용문사에 묵은 다음, 산을 넘어 사나사의 제 암자를 두루 둘러보았다. 양근을 거쳐 대탄에서 배를 띄워 물결을 따라 내려왔다.(중략) **용수청람**은 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만 높은 산의 푸른 기운이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이 기억나고, **운봉호월**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다만 밝은 달빛이 산봉우리 사이에서 밝게 빛나는 것이 기억나고, **사사십진**은 그 어떤 일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석탑 앞 前왕조의 옛 자취가 있어 선감에서 나옹의 의발을 구경했을 뿐이다. 산사를 나와 가마를 내려 돌 동굴을 지나 큰 시내 세 개를 건너니 바위가 두 손을 모은 듯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석문과도 같고 물이 굽이쳐 떠를 이루니 즉 이른바 **문암동천**이요, 이른바 **사천**이다. 산 아래 몇 곳의 마을이 보이고 뽕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니, 이 곳이 바로 **사천장**인가. 시내 저편에 산이 있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한데, 이것이 **건지송백**인가. 다리 아래 넓은 들판에는 농부들이 논밭에 가득하니 이것이 **침교권경**인가. 양근 관아에서 묵고 일어나니 성안의 고각소리 새벽에 울려 퍼지고, 시야에 가득 보이는 안개 낀 물결에 돛단배가 가득하니, **군성효각**과 **제탄모범**이 이것인가 아닌가.¹⁷

¹⁶ 이상아, 앞의 논문, pp. 76-104 참고.

¹⁷ 이정귀, 「斜川莊八景圖詩序」, 『月沙集』卷 40, 『한국문집총간』 70집, p. 15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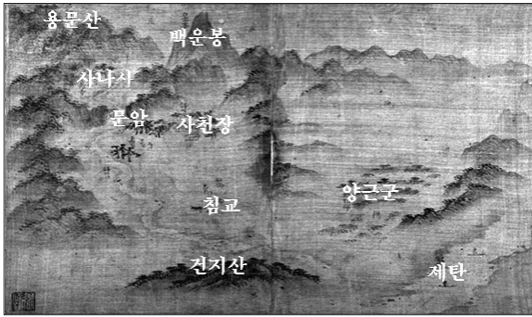
이 글을 보면 ‘문암동천’은 사천장 주위의 문암을 의미하며, ‘견지송백’은 견지산의 소나무와 잣나무이다. ‘용수청람’은 사천장이 위치한 양근의 용문산 모습이며, ‘운봉호월’은 용문산 서남쪽 능선 상에 솟아오른 백운봉의 정경이다. ‘사사십진’은 용문산 사나사에서서의 참선을 의미하며, ‘침교권경’은 사천장에서서의 생활을 소재로 삼은 것이다. ‘군성효각’은 양근군 성곽에서 올리는 새벽 피리소리를 소재로 한 것이며, ‘제탄모범’은 현재 남한강 제탄지역의 정경을 의미한다.

‘사천시첩’의 팔경시는 이 팔경표제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사천의 정경을 은일적 공간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주로 은일지사의 대표인물인 도연명의 「도화원기」 모티프를 인용하여 복사꽃, 무릉도원, 신선, 어부 등의 용어와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일례로 임숙영의 「제사천장팔경도」(추첩)의 문암동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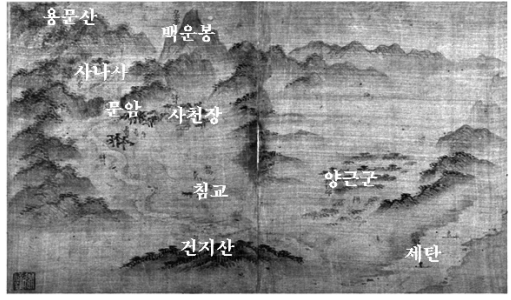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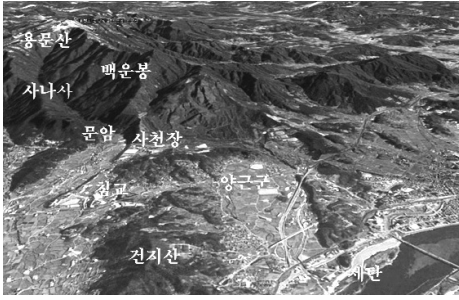
非關別有武陵春 따로 무릉도원의 봄이 있다 개의치 말게
 洞裡桃花太逼真 마을 안 복사꽃도 너무나 핏진하구려.
 擾擾流轉驚世俗 시끄러이 새어나가면 속세를 놀래키리니
 煩君莫索避秦人 그대는 구태여 진나라 피난민을 찾지 마시라.
 右門岩洞天 이상은 문암동천이다.



사천의 팔경을 한 화면에 집약한 <사천장팔경도>의 장소 대부분은 현재에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는 용문산, 백운봉, 사나사, 견지산, 양근, 제탄과 같이 <사천장팔경도>에 등장하는 장소와 지역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사천장과 문암의 위치 또한 이호민, 이경업 부자의 묘소(경



도 11 현 양평군 옥천면 일대 지도(위)와 <사천장팔경도>(아래)



도 12 현 양평군 옥천면 일대 위성사진(좌)과 <사천장팔경도>(우)

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북 2리와 <사천장팔경도>의 비교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¹⁸ <사천장팔경도>처럼 사천장 추정 장소를 중심에 두고 지도를 돌려보면 명소들의 현재 위치와 <사천장팔경도>에 표현된 위치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도 11). 위성사진을 통해 옥천면 일대를 부감시로 살펴보면 명소의 위치뿐만 아니라 산등성이의 굴곡과 평지의 높낮이까지 그림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천장팔경도>가 실제 지역의 위치와 형상을 충실하게 묘사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도 12).

1617년 이전 사천장을 경영하면서 팔경을 지정하고 <사천장팔경도>를 장만한 이경엄은 팔경시를 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1618년 도연명의 「유사천」 시를 보고 자신의 전장 지명과 도연명의 사천이 같음을 발견한 이경엄은 팔경의 지정으로 이상향의 이미지를 구축 하던 사천장에 도연명의 사천을 중첩하여 은일과 이상적 공간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된다. 이 경엄이 인용한 도연명의 「유사천병서」는 다음과 같다. 도연명이 머물던 사천은 지금의 강서성 성자현으로 여산 북쪽에 있다.

이웃사람 두세 명과 함께 사천에 노닐었다. 길게 흘러가는 물가에서 층성산을 바라보았다. 방어와 잉어는 저물어가는 강에서 뛰어 오르는데, 비늘이 반짝이고 갈매기는 따뜻한 바람을 타고 몸을 번드치며 날았다. 저 남쪽 여산은 경치가 오래전부터 이름나 더 이상 감탄할 게 없지만, 층성산은 옆에 기대는 것 없이 높이 솟아 홀로 언덕 위에 빼어났다. 멀리 신령스런 산(근륜산)을 생각하니 좋은 이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하락)

開歲倏五日 새해도 어느덧 닷새가 지나
 吾生行歸休 나의 인생도 돌아가 설 때가 되었다.
 念之動中懷 내 마음이 들뜨는 것을 생각하니
 及辰爲茲遊 이 좋은 시절에 봄나들이를 해야겠다.

¹⁸ 이호민, 이경엄 부자의 현재 묘소 위치는 진동혁, 앞의 논문, p. 76 참고.

氣和天惟澄 날씨는 화창하고 하늘도 맑아
 班坐依遠流 나이대로 자리잡고 앉아 아득히 흐르는 물가에 있다.
 弱湍馳文魴 약한 물결, 거센 물결에서 방어들은 헤엄치고
 閒谷矯鳴鷗 조용한 골짜기에서 힘차게 나는 갈매기.
 迥澤散游目 휘도는 못가에서 마음껏 바라보고
 緬然睇曾丘 높은 산언덕을 아득히 바라본다.
 雖微九重秀 비록 곤륜산의 빼어난 경치는 없었지만
 顧瞻無匹儔 사방을 둘러보건대, 여기와 대적할 만한 곳은 없다.
 提壺接賓侶 술동이 들어 친구에게 전해주고
 引滿更獻酬 잔 가득히 부어 주거나 받거나 한다.
 未知從今去 앞으로의 시간이
 當復如此不 지금처럼 즐거울지는 모르겠다.
 中觴縱遙情 반쯤 취했을 때는 마음껏 회포를 풀고
 忘彼千載憂 저 영원한 삶의 근심을 잊는다.
 且極今朝樂 오늘 아침의 즐거움을 실컷 누리나니
 明日非所求 내일이 되면 구할 수 없edo.¹⁹

이 시는 도연명이 37세 되던 해인 정월 5일 울리와 가까운 사천에서 지은 것이다. 산의 경치, 물고기, 갈매기 등 산수자연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며, 산수를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감흥을 읊고 있다. 산수자연으로의 은일을 동경하는 도연명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경엄은 사천장을 기념할만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시키던 차에 도연명의 사천 이미지까지 얻게 되자 그러한 기념 작업이 더욱 의미있게 되었다. 실제로도 1618년 이전에는 팔경시만을 구하던 이경엄은 1618년에 「유사천」 차운시를 자작하고 이후 여러 명현들에게 「유사천」 차운시를 구하는 일에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표 1). 그의 이러한 행적과 의도는 유근, 장유 등의 시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²⁰ 「사천시첩」에 글을 남긴 문인들 대부분은 광해조에 펴박받던 인물들로 자신들의 처지와 전날의 고초를 돌이켜보며 일찌감치 전원에 별서를 마련하여 은거를 준비한 이경엄을 칭송하였다.

¹⁹ 이경엄, 「유사천병서」, 「사천시첩」(하첩); 번역은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Ⅲ)-斜川詩帖, 耆老所契帖』(삼성미술관 Leeum, 2009), p. 52 참고.

²⁰ “이경엄의 자는 자릉으로 이 사람은 참으로 옛 사람이 한 일을 흠모하는 사람이다. 지금 〈사천장팔경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절정집』의 「유사천서」와 시를 기록하였다. 아버지인 오봉공에게 말하여 도연명의 시에 대한 화답시를 짓고, 아울러 서문을 짓고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군은 이 첩을 가지고 와 나에게 속초를 요구하였다.” 유근, 「題斜川莊帖并序」, 『西桐集』卷 1, 『한국문집총간』 57집, p. 441.

2. 회화의 구성과 양식

다음으로는 『사천시첩』 그림들의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천장팔경도〉(도 2)는 전체적으로 부감시로 화면을 구성하고 각각의 지명을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은 『삼재도회』(1607)와 『해내기관』(1609)의 산수관화에서도 볼 수 있다(도 13). 전체 구성뿐만 아니라 산의 중첩형태와 능선의 모양, 산 표면과 인물의 표현 등도 산수관화와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삼재도회』에 대한 조선에서의 최초 언급은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므로, 『삼재도회』는 이신흠이 〈사천장팔경도〉를 제작한 1617년 이전에 조선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¹ 이수광은 「사천시첩」에도 제문을 남기는 등 이호민가와 친분이 있었으므로, 이호민 부자와 이신흠이 『삼재도회』를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내기관』은 이종악 소장의 『해내기관』을 통해 17세기 전반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재도회』의 유입시기를 볼 때 『해내기관』 또한 출간 이후 큰 시차 없이 유입되어 〈사천장팔경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²



도 13 『삼재도회』 중, 명대

〈사천장팔경도〉는 전체적으로 부감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각각의 개별 경승은 사천장에서 바라보거나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 본 다양한 시점으로 표현되었다. 사천장 주변의 바위를 소재로 한 ‘문암동천’ 장면은 사천장에서 올려다본 시점으로 그려졌으며, 화면하단 ‘건지송백’ 장면은 평원시점으로 그려져 있다. 표제의 의미대로, 건지산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무성하게 표현되었다.

²¹ 이수광 저 丁海廉 역주, 『지봉유설 精選』(現代實學社, 2000), pp. 41-42; 이은하, 앞의 논문, p. 98 참고. 『지봉유설』에 『삼재도회』 속집에 수록된 구절이 인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수광이 열람한 『삼재도회』는 1607년 제작된 초간본이 아니라 1609년 재판된 속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정임, 「삼재도회와 조선후기 회화」(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 28 참고.

²² 고려대에 소장된 이종악 소장 『해내기관』은 이상정의 서문에 따르면 1630년 명에 사신으로 파견된 晴沙 高用厚(1577~1652)이 1631년 귀국하면서 구입한 것으로 이후 친구인 桐溪 鄭縑(1569~1641)에게 증여되었고 18세기 중엽까지 동계종택의 가장문헌으로 전해졌다. 문중에서 世傳되던 『해내기관』은 18세기 중엽에 정운의 5대손이며 이종악의 지우인 南屏 鄭璞(1734~1796)이 이종악에게 주었다. 본래 『해내기관』은 8권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종악이 정박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은 4권 뿐 이었고 이후 鄭木熏이라는 인물에게서 2권을 추가로 입수하여 6권으로 장첩하였다. 이랑, 「18세기 영남문인 李萬敷와 李宗岳의 世居圖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p. 97-98 참고.



도 14 <사천장팔경도> 용문산 백운봉 부분(좌)과 현재 백운봉 사진(우)



도 15 <사천장팔경도> 사나사 부분(좌)과 현재 사나사 사진(우)

‘용수청람’과 ‘운봉호월’ 장면은 모두 사천장에서 올라다 본 시점으로 그려졌다. 표제에 충실하게 백운봉 주위에는 달이 고즈넉하게 표현되어 있다. 산의 표현은 현재 양평군에서 용문산과 백운봉을 바라본 모습과 유사하다(도 14).

‘사사십진’ 장면은 사나사의 정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용문산 정도의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 본 시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옆의 사천장도 부감시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사천장 앞에는 이경엄 일행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사나사는 현재에도 그림과 동일하게 용문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도 15).

사천장 주변의 농경생활을 소재로 한 ‘침교권경’ 장면은 사천장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려졌는데, 소가 끄는 쟁기를 이용해 논을 가는 모습 등 당시의 농경장면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여 흥미롭다.

양근군의 정경을 소재로 한 ‘군성효각’ 장면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 본 시점으로 그려졌다. 관아의 홍살문이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운에 쌓인 것처럼 지붕의 희미한 표현만으로 집들을 나타내었다(도 17).

남한강 제탄지역의 정경을 소재로 한 ‘제탄모범’ 장면 또한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본 시점



도 16 현 서울 안국동, 삼청동, 송현동 일대 위성사진(좌)과 <세년계획도>(우)

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현재 위성사진에서 볼 수 있는 제탄의 위치 및 형태와 일치한다(도 12).

이처럼 <사천장팔경도>는 전체를 부감형식으로 한 화면에 집약하면서, 각각의 정경은 다양한 시점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실경을 충실하게 묘사하되, 산봉우리 주위의 달, 유람하는 인물, 경작하는 인물들과 고깃배 등의 모티프를 그려 넣어 실제 경치를 팔경으로 이상화한 의도에 맞는 그림으로 재현해 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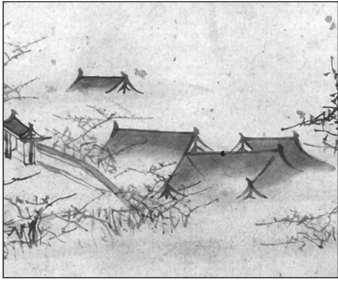
<세년계획도>는 이경엄의 한양 집 후원에서 열린 계획을 그린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그림 상단의 성벽과 성문을 통해 이곳이 한양도성 중 하나인 숙정문과 곡성이고, 이경엄의 집은 현재 안국동과 삼청동 사이의 송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²³ 현재 경복궁 뒤쪽의 숙정문과 곡성, 송현동의 위치를 위성사진을 통해 살펴보면, 실제 이 지역들의 위치와 유적의 형태가 <세년계획도>와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도 16).

<세년계획도> 또한 전체적으로는 부감시로 표현하면서, 백악산, 숙정문, 곡성은 이경엄의 집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계획의 장면과 이경엄의 집 주변 정경은 부감시로 표현하였다. 계획에 참석한 인물 수대로 화면에는 아홉 명의 인물들이 둘러앉아 있으며, 그 주위로 시중을 드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세년계획도>의 산 표면에 가해진 단선점준과 미점, 연운에 쌓인 듯 지붕만 보이는 집의 형태, 인물의 모습과 표현방식 등은 <사천장팔경도>와 거의 동일하여 이신흥 회화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도 17).

다음으로는 이 <세년계획도>와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앞서 추정한 화조화 2점과 산수인물화 1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양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목의 산수화, 산수인물화, 화조화가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은일 지향의 의도를 반영하는 적합한 화목으로서 동등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중기에 화조화가 은일적 성격의 화목으로 각광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은일은

²³ 진준현, 앞의 논문, 앞의 책, pp. 160-164.



도 17 <세년계회도>(좌)와 <사친장팔경도>(우)의 표현기법

모든 문인화목의 근본정신이지만, 강호의 은일지사나 은일공간을 직접 형상화한 산수화나 산수인물화, 화조화에서 더욱 두드러진다.²⁴ 중기에는 전쟁과 당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정황상, 회화에서도 은일정신이 직접 발현된 화목이 선호되었다. 또한 명대 절파화풍의 영향으로 인해, 강호의 은일지사를 형상화한 산수인물화

와 함께 자연 속 화조의 모습을 수묵으로 간일하게 표현한 수묵화조화가 인기 있는 문인화목으로 유행하였다.

문인들은 수묵의 산수화와 산수인물화, 화조화를 제작하고 성취하여 와유와 은일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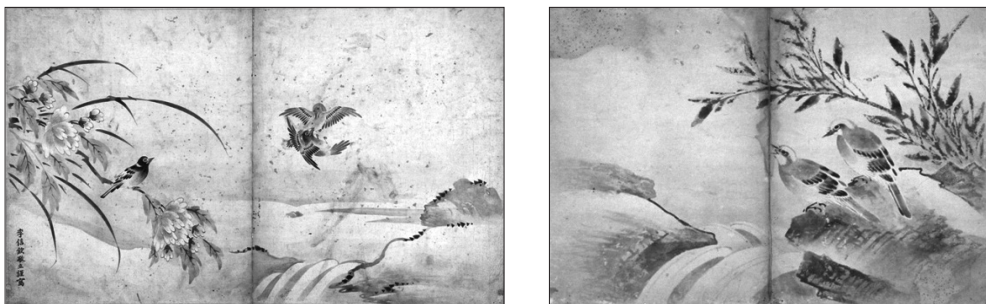
도 18 「사친시첩」 <화조도>(좌) 부분과 「춘곡앵상」中(우)

으로 삼았다. 중기 문인들의 문집에는 수묵의 산수화, 산수인물화, 화조화로 이루어진 화첩에 제한 시문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조합 형태로 현전하는 화첩 또한 다수이다. 또한 이들 화첩에는 수묵의 화조화가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중기 수묵화조화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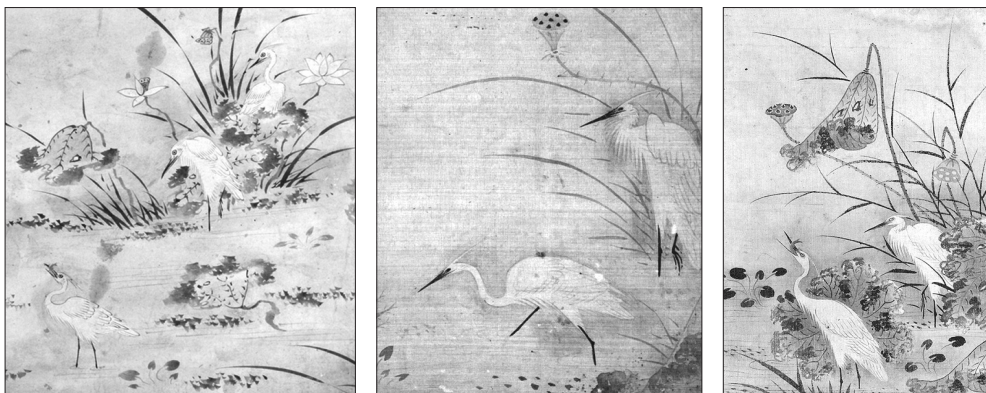
²⁴ 한국 문인화의 보편적 이상가치와 한국성에 대해서는 변영섭, 『문인화, 그 이상과 보편성』(북성재, 2013), pp. 13-107 참고.

행을 짐작할 수 있다.²⁵

은일정신의 심화와 더불어 조선중기에 활발하게 유입되었던 중국의 화조화보와 작품들 또한 조선중기 화조화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 「사천시첩」의 화조화에도 화보의 영향이 보인다. 세 마리의 새를 소재로 한 〈화조도〉를 보면, 오른쪽에 엉켜 있는 두 마리의 새는 『畫藪』 중 「春谷嚶翔」의 장면을 따른 것이며(도 18), 왼쪽의 새 또한 「춘곡앵상」에서 볼 수 있는 새의 자세와 유사하다.²⁶ 토파의 표현과 토파 사이의 계곡, 전체적 구도와 새의 자세 등은 앞서 살펴보았던 《연계동년계회첩》의 화조도와도 관련이 있다(도 19).



도 19 「사천시첩」 화조도(좌)와 《연계동년계회첩》 화조도(우)



도 20 「사천시첩」〈노연도〉(좌) 부분과 전 신사임당 〈노연도〉(중), 이징 《산수영모화첩》〈백로도〉(우)

²⁵ 조선중기 수목화조화의 성행배경과 작품 양식에 대해서는 이은하, 앞의 논문, pp. 82-159 참고.

²⁶ 『夷門廣牘』 총서에 실린 『畫藪』는 1598년 金陵 荊山書林에서 발간되었으며, 산수화와 백묘 인물화가로 알려진 周履靖이 편찬하고 明代 저명한 수장가인 項元汴(1525~1590)이 교정을 맡았다. 인물보인 「天形道貌」, 죽보인 「淇園肖影」, 매보인 「羅浮幻質」, 난보인 「九畹遺容」, 영모 초충보인 「春谷嚶翔」의 총 5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하나인 「춘곡앵상」은 조선시대 전래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후대 화보로의 영향 및 조선시대 화조화와의 관련 면에서 주목된다. 「춘곡앵상」의 내용 및 중국 화조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차미애, 「중국 화조화보의 유형과 계보」, 『미술사논단』 22(한국미술연구소, 2006); 「춘곡앵상」과 조선시대 화조화의 비교는 이은하, 위의 논문, pp. 92-98 참고.

〈노연도〉는 오른쪽에 세 마리의 백로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던 패하쌍로도 양식을 보여준다(도 4). 조선 초기 쌍로도에는 강가에 서 있는 백로와 물고기를 찾아 물 쪽으로 몸을 숙인 백로 한 쌍이 등장하는데, 중기로 가면서 몸을 숙인 백로의 모습이 펄떡 이는 물고기를 입으로 낚아 문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한다.²⁷ 따라서 이 장면은 조선 초, 중기의 패하쌍로도 모티프를 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도 20). 왼편 하강하는 백로의 모습은 현전하는 백로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선 초기 유자미의 학 그림, 중기 노안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²⁸

I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중기 문인 이호민과 이경업 부자의 별서, 계획과 관련된 『사천시첩』(춘, 하, 추, 동 「사천시첩」 4권과 「세년계회첩」 1권이 한질로 구성)의 체제와 회화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고에서 『사천시첩』 그림과 시문들의 내용 및 양식 고찰을 통해 밝혀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경업의 사천장 운영과 팔경의 지정, 이신흙의 〈사천장팔경도〉 제작은 1616년을 전후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았다.

둘째, 〈사천장팔경도〉와 함께 「사천시첩」 각 권의 처음에 등장하는 3점의 선유도와 화조도 들은 사천장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 이신흙이 1604년 〈세년계회도〉 제작시에 그린 작품일 것으로 보았다. 이 그림들은 《연주동년계회첩》의 화조도와 김홍도의 아집도 제작기록을 통해 세년계회 중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사천장팔경도〉와 〈세년계회도〉는 현재 경기도 양평과 서울 안국동, 삼청동 일대의 실경을 그린 것으로, 지도 및 위성사진과의 비교, 현재 지명을 통한 유추과정을 거쳐 그림상의 장소와 현재 지역의 위치 및 형상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부감시를 통해 사천 주변의 8경과 한양 일대의 정경을 한 화면에 집약하면서, 각각의 경승은 다양한 시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해내기관』이나 『삼재도회』와도 관련이 있

²⁷ 이은하, 앞의 논문, pp. 51-52 참고.

²⁸ 유자미의 〈지곡송학도〉는 『간송문화』 79(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10) 참고; 하강하는 기러기 이미지는 傳 이경운의 『낙파필희첩』, 『경남대학교박물관 소장 〈테라우치문고〉 보물, 시서화에 깃든 조선의 마음』(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경남대학교 박물관, 2006) 중 노안도 참고.

었다.

이경엄이 사천장 주위를 8경으로 지정하고, 이신흙으로 하여금 〈사천장팔경도〉를 제작하게 하였으며, 여러 문사들에게 팔경시 및 도연명의 「유사천」에 차운한 시를 얻어 그림과 함께 성첩한 행위는 개인의 소유지를 은일적 공간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년계회도〉 또한 계회의 장면보다는 주변 풍경에 치중하여 산수화적인 요소를 강조한 그림이다. 이 〈세년계회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3점의 그림들은 화보와 조선 초, 중기 그림에 등장하는 모티프를 응용한 은일적 성격의 수묵화조화와 산수인물화이다. 이상의 『사천시첩』 체제와 양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회화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천시첩』은 17세기 전반의 별서도, 계회도, 화조화, 산수인물화, 제화시문이 함께 성첩된 유일한 미술사 사료라는 점이다. 『사천시첩』을 통해 17세기 문인들의 시, 서, 화 교류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실경산수화를 비롯한 조선중기 회화의 제작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특히 〈사천장팔경도〉는 유명 문인들의 별서로 유명했던 양평 용문산 일대를 담은 유일한 실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세년계회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화조화, 산수인물화의 예를 통해 조선중기 계회도의 제작양상과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 이는 계회도 대신 화조화가 등장하는 《연계동년계회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례가 되며, 산수화, 화조화, 산수인물화가 문인들의 이상적 가치를 반영하는 화목으로서 동등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근거가 된다.

셋째, 『사천시첩』의 회화 작품들을 통해 조선중기의 대표적 화가 이신흙 회화의 기년과 양식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주제어(Key Words)_사천시첩(Sacheon Collection of Poems), 사천장팔경도(Sacheonjang Palgyeongdo), 세년계회도(Senyeon Gyeohoedo), 이호민(Lee Ho-min), 이경엄(Lee Gyeong-eom), 별서도(*byealseodo*(a picture of a farm villa)), 계회도(*gyehoedo*(a picture of fraternity association gathering)), 화조화(*hwajohwa*(a picture of flowers and birds))

■ 투고일 2013년 9월 24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16일 ■

참고문헌

1. 史料

- 유근, 『西桐集』, 『한국문집총간』 57집, 민족문화추진회.
이정귀,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70집, 민족문화추진회.
이호민, 『五峯集』, 『한국문집총간』 59집, 민족문화추진회.
장유,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92집, 민족문화추진회.
『사천시첩』 영인본, 보진재, 1972.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동방미디어.

2. 著書

- 변영섭, 『문인화, 그 이상과 보편성』, 북성재, 2013.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Ⅲ)-斜川詩帖, 耆老所契帖』, 삼성미술관 Leeum, 2009.

3. 논문

- 권경록, 「『사천시첩』에 나타난 문인들의 문학공간과 그 형상화」, 『한국어문학연구』 4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김은정, 「이경업의 사천장 경영과 『사천시첩』의 의미 재론」,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김현지, 「조선중기 실경산수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이랑, 「18세기 영남문인 李萬敷와 李宗岳의 世居圖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이상아, 「조선시대 팔경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이순미, 「조선후기 정선화파의 한양실경산수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학과 미술사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이원복, 「조선중기 사계영모도고」, 『미술자료』 47, 국립중앙박물관, 1991.
이은하, 「조선시대 화조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학과 미술사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조규희,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진동현, 「새 자료 이경업(1579-1652)의 시조」, 『시조학논총』 12, 한국시조학회, 1996.
진준현, 「400년 전 화가의 눈에 비친 북악과 숙정문」,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 태학사, 2011.

차미애, 「중국 화조화보의 유형과 계보」, 『미술사논단』 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1988.

국문초록

『斜川詩帖』은 조선중기 문인 李好閔(1553~1634), 李景巖(1579~1652) 부자의 별서, 계획과 관련된 李信欽(1570~1631)의 그림과 중기 문인들의 시문, 글씨들로 이루어진 시서화첩이다. 春, 夏, 秋, 冬 4권의 『斜川詩帖』과 1권의 『世年契會帖』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 『사천시첩』 그림과 시문들의 내용 및 양식 고찰을 통해 밝혀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경엄의 사천장 운영과 팔경의 지정, 이신흙의 〈사천장팔경도〉 제작은 1616년을 전후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천장팔경도〉와 함께 『사천시첩』 각 권의 처음에 등장하는 선유도와 화조도 3점이 사천장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신흙이 1604년 〈세년계획도〉 제작시에 그린 작품일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들은 〈연주동년계획첩〉의 화조도와 김홍도의 아집도 제작기록을 통해 세년계획 중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사천장팔경도〉와 〈세년계획도〉는 현재 경기도 양평과 서울 안국동, 삼청동 일대의 실경을 그린 것으로, 현재 지역의 위치 및 형상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부감시를 통해 사천주변의 8경과 한양 일대의 정경을 한 화면에 집약하면서, 각각의 경승은 다양한 시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해내기관』이나 『삼재도회』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사천시첩』 체제와 양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회화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천시첩』은 17세기 전반의 별서도, 계획도, 화조화, 산수인물화, 제화시문이 함께 성립된 유일한 미술사 사료이다. 『사천시첩』을 통해 17세기 문인들의 시, 서, 화 교류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조선중기 실경산수화의 제작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특히 〈사천장팔경도〉는 유명 문인들의 별서로 유명했던 양평 용문산 일대를 담은 유일한 실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세년계획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 화조화, 산수인물화의 예를 통해 조선중기 계획도의 제작양상과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 이는 계획도 대신 화조화가 등장하는 〈연계동년계획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례가 되며, 산수화, 화조화, 산수인물화가 문인들의 이상적 가치를 반영하는 화목으로서 동등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근거가 된다.

셋째, 『사천시첩』의 회화 작품들을 통해 조선중기의 대표적 화가 이신흙 회화의 기년과 양식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Abstract

Paintings in Sacheon Collection of Poems

Lee, Eun-ha *

The Sacheon Collection of Poems is a collection of paintings made by Lee Sin-heum(1570-1631), who was associated with the farm villa Sacheonjang and with the *gyehoe*(fraternity association gatherings) of Lee Ho-min(1553-1634) and his son Yi Gyeong-eom(1579-1652), both of whom were men of letters during the mid-Joseon Period. The collection also includes poems and calligraphic works composed by contemporary men of letters. It consists of four volumes of poems about the four seasons and a volume about *gyehoe*. This study came up with the following findings as a result of examination of the contents and style of the book:

First, it is thought that the designation of eight scenic views(*palgyeong*) near Sacheonjang, and Lee Sin-heum's *Sacheonjang Palgyeongdo*(Painting of the Eight Scenic Views of Sacheonjang) were all made in or about 1616, at a time when Lee Gyeong-eom was operating the villa.

Second, it is thought that the three pictures of deities taking their leisure and of flowers and birds, which appear along with *Sacheonjang Palgyeongdo* at the first part of each volume of the collection, have nothing to do with Sacheonjang Villa but had been done at the time of Lee Sin-heum's *Senyeon Gyehoedo*(Painting of a Gathering of Fraternity Association Members) in 1604. The belief that these pictures had been painted during that session is based on records about the painting of pictures of flowers and birds of Yeonjudongnyeon Gyehoecheop and Gim Hong-do's *Ajipdo*(a picture of a gathering of 16 well-known artists at Wang Shen's house during the Northern Song China period),

* Lecture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Korea University

Third, the two pictures, *Sacheonjang Palgyeongdo* and *Senyeon Gyehoedo*, portrayed scenes in Yangpyeong, Gyeonggi-do and in Anguk-dong and Samcheong-dong, Seoul, and the scenes correspond to present-day scenes there. They portray the several places on one scene, with each scene portrayed in detail from diverse perspectives. This mode of composition is thought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ose of *Hainei qiguan*(Marvelous Sights within the Empire) or with the *Sancai tuhui*, a richly illustrated encyclopedia from the Ming period compiled by Wang Qi.

The significance from an art history perspective found from the form and style used in *Sacheon Collection of Poems* is as follows:

First, the collection, which was made in the early 17th Century, is the only material available for those studying the history of fine art that contains a picture of a farm villa, a picture of a fraternity association gathering(*gyehoedo*), a picture of flowers and birds(*hwajohwa*), a picture of a landscape and figures, and poems associated with the subjects of the pictures. The book makes it possible to look at poems, other writings and pictures produced by people of letters in the 17th Century and at how these people mingled with each other, and in addition, how topographic landscapes were painted in the mid-Joseon Period.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Sacheonjang Palgyeongdo* is the only real landscape painting available of a place in Yongmunsan Mountain, Yangpyeong, which was noted as a site of farm villas belonging to well-known men of letters.

Second, the status of production of *gyehoedo* in the mid-Joseon Period can be examined,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wajohwa*, landscape pictures, and figure pictures, which are all thought to have been made along with *Senyeon Gyehoedo*. This made it possible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Yeonjudongnyeon Gyehoecheop*, in which *hwajohwa* appears instead of *gyehoedo*, and lays the basis for thinking that *hwajohwa*, landscape pictures, and figure pictures were all equally recognized as objects that reflected ideal values of people of letters.

Third, the collection makes it possible to examine in detail chronological and styl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s of Lee Sin-heum, a leading painter of the mid-Joseon Period.